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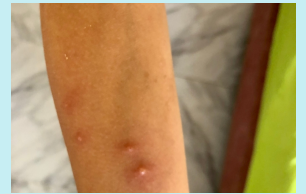
shalom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겠지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가르켜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옛날 한 가수(故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정말이지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찬송가 242장,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의 가사 말 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 가고자 합니다. 이번달 기도 서신은 현재 진행중인 저희들의 ‘나그네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 장막 옮기기

지난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 보름 가량을 더 이리저리 장막을 옮겨다니며 살아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첫번째 장막은 갈릴리 인근에 위치한 아랍마을 ‘데이르 한나’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도 아랍마을은 자주 방문하지만 직접 살아본적은 없기에 이번에 Airbnb(에어비앤비)를 통해 구한 숙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집에 복병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자꾸만 몸이 따끔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 보니 저만 그런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그동안 없었고, 저희가 1년 넘게 비워둔 집에 처음 들어온 거라고...” 하더군요. 이후에 원인이 벼룩임을 알고 그때부터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약도 뿌려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가까이를 매일같이 벼룩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이웃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귄이 있어 나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집주인 ‘나리만’ 아줌마와 친해져서 언니라고 부르며 같이 운동도 가고, 따로 놀러 다니기도 하며 무척 가까워 졌답니다. ‘나리만’ 과 그의 가정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번째, 장막 옮기기

벼룩으로 한달 가까이 고생하다가 9월 초에 두번째 장막으로 ‘호샤야’라는 유대인 종교인 마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외국인이나 일반인들은 살 수 없는 종교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저희가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데이르 한나’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벼룩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기뻐



복병 ‘벼룩’

첫번째 장막, ‘데이르 한나’에서 매일 밤 벼룩과 씨름하며 한달을...



종교인 마을 ‘호샤야’

두번째 장막, ‘호샤야’에서 9월 한달 동안 3대 절기를 보내며 목격하게 되는 것들...



대속죄일에 도로에 눕다

1년 중 유일하게 도로에서 차를 볼 수 없는 날, 대속죄일(욥키프르)에 동네 ‘호샤야’에서...



베두인 마을

점점 다가오는 우기와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베두인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청을 듣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가시기전 9월 한달 중 10일 넘게 동네 밖을 제대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안식일(금,토), 7,8일은 유대인 새해, 16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21일과 28일은 장막절, 게다가 절기에 들어가기 전과 절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엄격하게 시간을 준수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갇혀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시간(오후6시쯤)이 되면 정문이 통제되어 닫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가족들과 동네 주변을 참 많이 걷게 되었고, 덕분에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때로는 낯선 이방인의 출현에 의심과 따가운 시선도 받지만, 이번에 종교인 마을에 살면서 그들의 삶과 종교성을 몸소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월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이곳에 사는 이웃들과도 좋은 사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번째, 장막 옮기기

이제 다음달(11월 1일)이 되면 마지막 장막 옮기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을 떠나 성경의 막달라(미그달) 지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현지인 사역자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남은 한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런 저희들의 장막 옮기기를 안스럽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 이 시간을 즐기고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 수 있다는 점이나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아내도 아이들도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또 나름 그 속에서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이 되면 새로 계약한 '우리 집'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 가량 떠돌이 생활이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길 위에서 고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계신 본향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을 향한 끊임 없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응원을 받으며 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만 이곳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 1) 나그네의 생활 가운데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 2)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 3) 유머인 사역팀(JCMT)의 재정비와 외부 협력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 4) 가는 곳마다 예비된 만남들 가운데 사귀와 교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5)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리고 시온성...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